

돈에 물든 상아탑

교수임용에 돈 개입·자기사람 뽑기 연구비유용·고액과외 등 불법 속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유용(승실대 도갑수교수·화공학)하거나 교수임용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교수(서울산업대 김영길교수·사회체육학)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전국 각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연거푸 폭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최창 박창교 감원대교수)은 7일

임용제도 개선등 대학 자정노력 절실

18개 대학의 불법임용 사례20건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제 이 문제가 검찰권 발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수 공정임용 모임'에 참여한 교수들은 "금품수수, 자기 사람 뽑기 등 불법적인 임용관련 비리는 철저히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학의 수준은 세계 1백대에 드는 곳은 하나도 없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들의 질이 낮으니 국가가 경쟁력을 잃은 것도 당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50%가 교수임용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학 부조리중 9%가 임용에 금전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자체가 잘못 채용되는 상황 아래서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수채용은 교수간의 채용담합, 모교출신 교수 뽑기 등 학문적인 '근친상간'의 폐해도 낳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교육받은 실력있는 두뇌들이 잘못된 대학풍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이들이 적

지 않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대는 지난 2월20일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수의 성희롱사건과 치대교수 임용비리와 관련, 교수들의 논문표절, 과도한 정치활동,

공공의 눈 "지식 파는자 스승아니다"

동국대 박성영교수(교육학)는 "교육의 본질은 인간(도덕성) 육성에 있기에, 교수는 단순한 지식·기능의 교수자가 아니라 인생에 깊은 시사와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 학생, 교육내용이 교육의 3대 요소라 할 때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스승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수로 채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래 십호(十號) 중의 하나인 천인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수 사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부와 대학은 공정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정년(65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사회의 구조를 대학과 일반사회, 대학 상호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열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극한 상황으로 치달던 여야의 대결양상이 11일 정치의 경제화인을 분리 처리하는 합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F정국 극복에 온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 한기호씨 정정을 일삼는 모습은 온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다. 경전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말 것이다. (석정인연경)

■ 비구들이여, 여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인욕을 닦아 지키며, 서로 다투고 송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느니라. 사람들을 책망하여 예경(禮敬)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 은혜와 덕을 배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만니향경)

■ 햇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의 생명이다. (대만월명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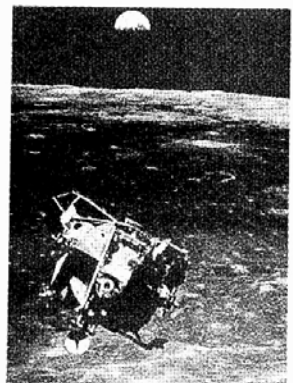
■ 법부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름을 일으켜 진실하다니 진실하지 않다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있기 일쑤다. 그러나 세상에 다름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상황을 살알이 알고 있기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운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승사유범천소문경)

"대학은 반성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 교수들 문제 제기

지식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여기에서 필요한 지식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요즘 한국 지식인 사회에 던져진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지식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호근교수(서울대·사회학)의 (또 하나의 기록을 향한 짧은 시련)(나남출판 간)에서 송교수는 국가 부도위기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한국 사회과학의 대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최근 서점에 나온 계간지들은 송호근 교수의 고뇌가 한국 지식인 사회의 '반성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임을 보여준다. <문화와 사회> (현대사상) 등 계간지는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와 '한국 학술단체 협의회' (학단협)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있다. 특히 민교협과 학단협이 최근 발표한 건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문정책의 기본 방향>(대표 작성자 강내희·유초하 교수)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 더 크게는 문화의 위기에서 말미암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8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장면.

달서 '물' 발견

생명체 존재 가능성

불교 우주관 증명 '눈앞'

달의 남극과 북극 표면에서 얼음형태의 물이 발견됐다고 미항공우주국(NASA)이 5일 밝혔다. 이에따라 몇천년 달에서 미생물인 연쇄상균(連鎖球菌)이 발견된 것과 더불어 지구이외의 행성 또는 위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이와관련 교계는 "무수한 부처와 중생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

는 불교 우주관의 예시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사상) 김용정(전 동국대교수·철학) 편집인은 "불교는 우주가 기본적인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것으로 구성된 생명체(사람) 역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대과학은 불교의 우주관을 증명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왕경)에는 "1백억개의 태양과 달, 그리고 열한 개의 대개와 5백개의 중국, 그리고 1만 개의 소국이 있으며..."라고 하여, 1백억개의 행성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립공원 야영·산장이용 7월부터 예약 의무화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에서 야영하거나 산장에서 숙박하려는 등산객들은 관할관리공단에 미리 이용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국립공원 사전예약제를 설악산과 지리산 등 일부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는 등산객이 등반에 앞서 야영장과 대피소 이용신청을 해야 숙박이 가능한 제도. 환경부는 국립공원내에 온천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불길속 어린이 15명 구조

중양대 의과대 휴학생 윤유상(26)씨가 불길에 갇힌 어린이 15명을 구해내 화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연세대학 건물 지하층 레스토랑에서 불이나 2층 유아방에 어린이 15명과 교사 2명이 갇혔으나,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윤씨에 의해 발견돼 구출됐다.

정신대 할머니들에 무료인술

대구 광범인 광동협(41) 내과과장은 6일 대구지역 정신대할머니 7명을 무료로 보살펴 온 점을 인정받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연경·유기호)이 수여하는 '여성권익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철모아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지회장 조호능)는 11일 '나라사랑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벌여들인 수익금 9백여만원으로 20kg들이 쌀 2백포대를 구입,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2백가구에 전달했다.

북경당첨금 장학금으로

지난 94년 미국 사상 최고액인 1800만달러(한화 2백80억원상당)의 북경에 당첨된 재미교포 이옥자(58)씨가 서울대·연세대에 장학금을 희사했다. 이씨는 9일 서울대를 방문해 법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 5명에게 1천달러씩 지급을 약속했으며, 다음날인 10일 연세대를 찾아 1만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고시생 등친 고시계 대부

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고시계의 대부' (90년대 초 어려운 고시준비생들에게 무료숙박 제공)로 알려진 신림 9동 설봉서적 주인 이모(41)씨가 고시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96년부터 고시생들에게 "한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챙긴 뒤 지난해 11월 잠적했다는 것.

경비원이 근무은행 털어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업체의 용역제공 은행에서 현금 3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조 일체(24)씨를 긴급체포하고 한모

빛값으로 '보험금 자살'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주부 김모(49)씨가 9일 오후 '보험금을 빛을 갚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숨진 김씨에 친척과 이웃에 진 빚 5천만원에 시달려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김씨가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자살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에 얼마간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상품

'불편검용 녹음펜'

우연중이거나 그 밖에 갑자기 급한 메모가 필요할 때, 영어단어 및 수학공식 등을 녹음 재생해 반복학습 효과를 기대할 경우에 유용한 '불편검용 초소형 녹음펜'이 출시됐다.

불편에 IC칩을 내장해 20초동안 녹음이 가능한 이 제품은 불편·녹음기능 이외에 야간시 램프 역할과 이어폰 기능까지 있어 편리하다. (주)21세기통신, 가격은 3만9천원. (02)992-5431

천천욱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백은 손의 분광파장이 회복되다
 ▲연속 사용전 1.5V 연속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0여종의 뇌내오르민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허약,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자유로
 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처방(1회 진료)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옥민을 착용해서 사아민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편번호)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품으로 배우는 시경(佛書) 학습 수강생 모집. 사경준비와 붓이 있고 법구, 다라니 있습니다(통인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04)216-0307

●주론 신장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硯究會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 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